電子工業日誌

〈93. 5. 1~5. 29〉

5. 1 : 상공부, 최근 엔고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일본과의 산업기술 협력체제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촉진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.

5. 1 : 과기처, 기술수준이 뛰어난 국산제품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신기술 인정마크(KT) 제도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.

5. 4 : 중진공, '93년 자동화 및 시설근대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사업에 지난해보다 725억원이 늘어난 3,870억원이 지원 된다고.

5. 8 : 정부, 해외첨단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재 설치할 것을 검토중인 투자자유지역(FIZ)에 대일 수입선 다변화 품목생산을 위한 일본기업의 직접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.

5. 11 : ETRI, 주전산기개발사업단은 주전산기 Ⅳ이 개발완료되는 '94년부터 오는 '97년까지 최신 중대형 클러스터(다발) 컴퓨터나 대규모 병렬처리(MPP)컴퓨터를 개발하는 내용의 주전산기 Ⅲ개발 프로젝트(안)을 마련 구체적인 사업준비에 착수한다고.

5. 14 : 공진청, KS공장 심사기준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KS허가를 취득하기 어려워 수요자의 신뢰 획득 등 여러측면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기준을 차등화, 중소기업이 KS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.

5. 14 : 과기처, 올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총 1,050억원을 투입, 선도기술개발 및 첨단요소기술개발사업 등 미래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력 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간 핵심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.

5. 18 : 공진청, 국산 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제기술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.

5. 18 : 상공부, 오는 9월 1일부터 반도체칩의 배치설계 뿐만아니라 이를통해 제조된 최종제품까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법의 보호를 받게된다고. 그러나 배치설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2년이상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권리남용 방지를 위해 이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강제로 이용권을 줄 수 있게 된다고.

5. 18 : 공진청, 일본·독일 등 선진국들의 공업규격을 KS에 반영하는 규격 선진화 작업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편 일본의 국가규격인 JIS와 독일의 국가규격인 DIN, 국제전기표준위원회(IEC) 규격 등을 검토 800종의 KS규격을 개정할 방침이라고.

5. 22 : 생기원, G_7첨단생산시스템 개발 2차년도 사업을 44개 과제(1차년도 17개 과제 포함)에 20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.

5. 22 : 상공부, 지난해보다 152억원이 늘어난 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총 18개부문 48개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렉트로-21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.

5. 24 : 체신부,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는 국내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안에 정보화촉진기본법(가칭)을 제정키로 했다고.

5. 26 : 상공부, 올해부터 '97년까지 5년간 정부지원 240억원을 비롯 총 50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북미형(IS-54)과 유럽형(GSM) 디지탈 단말기 및 총 14개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.

5. 26 : 과기처,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특별자금을 마련 6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보유기술 무상양허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자극, 확산시킬 계획이라고.

5. 27 : 정부,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첨단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잠정세율적용이 확대되고 주력산업 분야의 중간핵심기술이 집중적으로 특화 개발된다고.

5. 29 : 과기처, 최근 여러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화면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통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룹 작업용 탁상회의 시스템을 개발했다고.